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센터에서는 4월 23일 충남대학교 국제정심화홀에서 해외전문가를 초청, 우리나라 중소도시재생의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의 개회사와 도시재생사업단 임서환 단장의 축사, 서울시립대학교 김창석 교수의 “중소도시 재생 사업 추진의 과제와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일본과 호주 및 우리나라의 중소도시재생 정책과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일본 동경대학의 KIDOKIRO, Tetsuo교수는 “일본의 지방 중소도시 재생정책 및 사례”에서 일본의 중소도시의 쇠퇴의 원인을 인구감소, 고령화, 글로벌화로 인한 동경 집중, 중심시가지의 쇠퇴로 보았으며, 이를 위한 도시재생정책을 도시재생특별조치법(1998), 대형점입지법(1998), 중심시가지활성화법(1998), 도시계획법 개정(2006) 등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창조도시 정책의 사례로 가나자와시, 마켓 선도형 정책의 사례인 다카마츠시, 시민 주도형 정책의 마츠야마시를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소도시 재생을 위해 첫째, 장기적인 도시발전 컨셉과 제완화 도시재생사업의 지양, 둘째, 광역적인 공간계획제도의 구축, 셋째,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김진우 교수는 “호주의 도시재개발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퀸즐랜드의 부나, 뉴 사우스 웨일즈의 쿨라, 퀸즐랜드의 미셀을 사례로 소개하였다. 이들 성공지역의 공통점은 첫째, 주민의 참여, 둘째, 민관의 공동협의 및 추진, 셋째, 지역인재 투입, 넷째, 외부전문인력의 참여를 꼽아 우리나라 중소도시 재생을 위해 시사점을 주었다.



또한, 경상대학교 김영 교수는 “한국 지방중소도시 재생정책과 사례”를 주제로 마산, 진주, 아산, 익산, 군산의 도시의 쇠퇴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동시에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업계획 달성과 관리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지역협력체의 역할을 강화를 지적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의 김영기 박사, 한밭대학교 박천보 교수, 경남대학교 서익진 교수,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이규열 사무관, 전북대학교 황지욱 교수가 참석하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재생을 위한 의견과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누어 향후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